

장흥 장동초등학교살리기 주민·동문·향우 뭉쳤다

신입생 3명 폐교 위기...240여명 자발적 참여 2000여만원 기금 모금



2018년 신입생이 3명에 그친 장흥군 장동초등학교(교장 김진홍)는 전교생이 24명으로 올해 복식학급 편성이 불가피하게 됐다. 장흥군은 19일 장동면민영회는 장동초 동문과 지역민의 뜻을 모아 지난해 12월 26일 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농촌의 작은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동문, 지역민, 향우가 힘을 모으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장흥군에 따르면 2018년 신입생이 3명에 그친 장흥군 장동초등학교(교장 김진홍)는 전교생이 24명

으로 올해 복식학급 편성이 불가피하게 됐다.

학생 중 3명은 지난해까지 장흥읍에서 출퇴근하는 교직원의 차량을 이용해 등교 했는데, 해당 교직원이 이동하게 돼 이마저도 여의

치 않게 됐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본 장동면민영회는 장동초 동문과 지역민의 뜻을 모아 지난해 12월 26일 학교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섰다.

추진위 구성원들은 면민들의 추억을 간직하고, 4000여 동문을 배출했던 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도록 손놓고 있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창회와 향우, 지역단체 등 240여명이 학교살리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2000여만원의 학교살리기 기금이 모금됐다.

모아진 기금은 지난 2월 9일 장동초등학교 졸업식에서 전달됐다. 이 가운데 700만원은 교통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학생 교육 활동에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동문, 향우회가 움직이면서 장동초등학교가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게 됐다"며, "지역 인재육성의 요람은 물론, 지역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홍필 기자

여주시 '달리는 장난감나라' 대여자 2배 증가



여주시가 '아이내래 달리는 장난감나라'를 운영한 후 장난감 대여자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첫 달에 184명 이용...지난해 평균 85명

이달부터 대여자격도 완화...부모주소만 확인

시에 따르면 이동식 장난감 대여소인 달리는 장난감나라는 운영 첫 달인 지난달 184명이 이용했다. 달리는 장난감나라 운영 전인

지난해 한 달 평균 대여자수(85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시는 기존 장난감나라 1·2호점

을 방문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5톤 트럭을 개조한 달리는 장난감나라를 지난달 4일 첫 운영했다. 이후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구 밀집지역과 읍·면지역을 2주 간격으로 순회하고 있다.

달리는 장난감나라는 집 가까운 곳에서 기존 장난감나라에서 보유한 1051종 1199점의 장난감을 빌릴 수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시는 이달부터는 대여자격을 가족 중심에서 부모 중심으로 변경해 수혜범위를 늘렸다.

기존 자격은 여주시내 주소로 둔 0~6세 아동의 가족으로 부모와 아동이 같은 주소에 있어야 했다.

이 기준이 이달부터는 조부모를 포함한 부모만 여주시내 주소로 두면 되도록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달리는 장난감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크다"며 "운영지역을 넓히는 등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 장난감나라 1·2호점은 진장어린이집에서 운영 중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 5월 4일~7일 개최 확정

완도군은 '2018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를 오는 5월4일부터 7일까지 완도해변공원과 정해진유적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완도군은 최근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보고수산물축제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안'을 확정했다.

추진위는 2018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를 '보고 먹고 체험하는 싱싱한 정해진 여행'이란 주제로 완도만의 특화된 역사·관광자원 등 해양관광 중심지 완도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또 기존 축제와 차별화해 장보고와 수산물이 융합한 킬러콘텐츠를 발굴하기로 했다.

안봉일 완도군 관광정책과장은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해양헬스케어 산업을 알려 완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사)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 노인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사)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회장 강갑구)와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회장 정양수)는 2018년 노인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5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은 참여 노인의 재능을 활용하여 안전사고 예방, 상담, 학습지도 등의 다양한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복지서비스 활동으로 노인들에게 각종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는 노인상담 재능어르신 200명,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는 안전사고 예방 및 노인상담 재능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일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단,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장기요양 등급판정자(1~5등급 및 인지기원등급),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2017년 노인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 부정수급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사)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와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이며 월 4회, 10시간이상 활동으로 참여자 1인당 월 10만원 이내(6개월 활동 시 최대 54만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사)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061-287-6065)와 (사)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061-452-8667)로 하면 된다.

무안=이기성 기자

'향긋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 진도 봄동 수확 한창

한겨울 해풍 맞고 자라 달콤...내달까지 수확 이어져



"진도 봄동 배추로 산뜻하고 개운한 겨울 속에서 봄 맛을 느껴 보세요."

진도군은 차가운 겨울을 견디고 지난 1월부터 농가들의 손길이 분주하다고 19일 밝혔다.

한겨울 해풍을 맞고 자란 달콤한

배추인 봄동 수확은 오는 3월까지 이어진다.

진도군의 겨울철 대표적 농산물인 봄동 배추는 줄기와 잎 부분이 부드럽고 맛이 좋아 된장국이나 나물무침, 김절이 등으로 요리하면 구수하고 진한 향이 일품이다.

봄동 재배 농가들은 "봄동은 지

금 단맛이 가장 좋을 때"라며 "달콤하면서도 아삭아삭한 식감의 진도 봄동이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봄동은 진도군 일대가 주산지로 곡설 등 한파의 영향과 웰빙식품 등으로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전체 183농가가 207ha에서 재배해 연간 7452t을 생산, 22억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봄동은 남자 어른이 두 손을 펼쳐 엮었을 때의 크기 정도가 최고 상품으로 잎이 뻗었지만 않고 부드러워야 김절이로 사용할 때 씹는 맛이 아삭 아삭하다.

늦가을 씨를 뿌려 추운 겨울을 이겨낸 겨울 배추인 진도 봄동은 칼륨과 칼슘, 인이 풍부해서 빈혈·동맥경화 예방 등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겨울철 찬바람 편서리로 보양 삼아 자란 진도 봄동은 일반 배추보다 씹는 맛이 고소하고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